

# 이주민, 이주노동자의 목소리를 담는 민주주의!

## - 수원이주민센터 킨메이타 대표 인터뷰

손진우 상임활동가

좌초된 윤석열의 비상계엄 시도는 광장을 불러왔다. 다양한 시민들이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. 광장을 가득 채운 이들의 염원이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 확신한다. 하지만 광장의 한편에서, 주목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. 극우 세력들의 혐오 대상이 된 이주민과 이주노동자들은 광장에 나서기 두렵다. 수원이주민센터의 킨메이타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 보았다.

**비상계엄 사태가 발생 후 지금껏 혼란한 상태잖아요. 수원이주민센터(이하 센터)를 찾는 이주민, 이주노동자들은 어땠나요?**

제가 미얀마 출신이다 보니, 미얀마 친구들이 센터에 많은데요. 이분들은 미얀마에서 민주주의가 파괴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잖아요. 경험해 봤으니까 더 피부로 문제를 느끼는 것 같아요. 12월 3일에 단체채팅방이 밤새 울렸어요. ‘지금 비상계엄이라는데 맞냐?’ 저도 모르고 있다가 급하게

확인하고, ‘맞다. 조금 상황을 지켜보자’라고 했거든요. 다들 잠 못 자고, 유튜브로 상황을 지켜봤던 것 같아요. 새벽에 국회가 비상계엄 무효를 결정하니 다행이라고 환호했던 기억이 나요.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의결한 후에는, 한 친구가 센터로 꽃다발을 가지고 왔어요. 탄핵 축하한다고요. 한국도 미안마처럼 되면 안 된다고 말이죠.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하려던 것이 미얀마에서 벌어졌던 일들과 다르지 않다고 여기는 거죠.

**윤석열이 군대를 동원해서 영구독재를 하려던 모습이 미얀마의 상황과 겹쳤겠어요.**

맞아요. 다들 트라우마가 있거든요. 비상계엄 실패 이후에도 윤석열이 강하게 끝까지 싸운다고 했잖아요. 지지자들도 세계 말을 하고 있고요. 한국 시민들의 의견이 반반으로 갈라져 있다고 느끼니까. 진짜 내전이 나는 것 아니냐고 두려움을 갖더라고요. 눈으로 피

나는 현실을 지켜본 친구들이니까. 한국도 군 부독재를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,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경험이 있다는 얘기를 나누며 안심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.

### 광장을 나가는 것에 두려움은 없으세요?

저도 서울 집회에 센터 친구들과 몇 번 올라갔어요. 수원역 집회에도 참석하고요. 그런데 얼마 전에 집회를 다녀온 친구가 주변에서 메시지를 받은 것 같아요. '외국인들이 집회를 참여한다', '그러다 잡히면 오히려 추방당한다'는 협박 문자 같은 것들이요. 그래서 서울 집회에 갈 때는 무조건 마스크 착용하라고 일단 얘기를 해 줬어요.

### 윤석열 퇴진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와 바람도 있기 때문일 텐데요.

가장 중요한 문제는 누가 집권하느냐, 어떤 당이 정부를 꾸리느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. 이주민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요. 말 한마디, 배려하지 않는 행동이 이주민이나 이주노동자에게는 상처가 되거든요. 그래서 어떤 당, 특정 정치인에 대한 기대보다는 저희 이주민이라는 존재를 제대로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

그다음으로는 문화 다양성에 대한 존중인 것 같아요.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, 서로가 고유한 존재이고, 문화가 다르다는 걸 이해하려는 것이죠. 우리 센터에서도 여러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어울리는데, 각국 음식을 만들어서 나눠 먹는 노력을 하거든요. 그러면



▲ 수원이주민센터 대표 킨메이다. 출처: 손진우

서 서로의 존재를 배워 나가는 거예요. 내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고집해서도 안 되고, 같이 어울려 살아야 한다는 것을 경험하고 배워야 하니까요.

### 정부가 이주민, 이주노동자의 유입을 확대하고 있지만, 정착 지원은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데. 어떤 게 필요할까요?

정작 한국이 이주민이 필요해서 이주민 정책을 펴는 건데요. 실제 이주민, 이주노동자를 뒷받침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. 일하는데 안전을 보장하지도, 주거지 보장도, 사회보장도 없습니다. 데려오긴 하는데, 갈 때까지 인간다움을 보장하지 않아요. 조금씩 변화하고 있지만, 이주노동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 좋겠어요. 이들이 노동력이 아니라, 사람인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. 인간이기 때문에,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보장하는 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. **알타**